

9월 13일(월) / 호 11-14

▶ 내용요약 : 호세아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애타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잊으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이다. 12-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이름까지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였다. 그들은 거짓 저울로 이웃을 속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렸기 때문이었다. 14장에서 호세아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호소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14장)
“내가 그들의 ()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하리니 나의 ()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 생각하기 :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배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애타게 부르신다. 우리는 쉽게 변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자. 그것이 우리의 힘이며 소망이다.

9월 16일(목) / 암 4-6

▶ 내용요약 : 계속해서 아모스 4장에는 사마리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5장에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위한 애가를 지어 들려주면서 더 늦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호소했다. 또한 선을 구하고 악을 버리라고 했다. 그것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절기와 성회를 미워한다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극에 달해 있었다. 한편 6장에서 아모스는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했다. 그들은 교만했다. 그리고 그들의 풍요로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지 못했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5장)
“오직 ()를 물 같이, ()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이다”

▶ 생각하기 :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과 일상을 분리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일상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신앙이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다. 예배당에서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신앙인이 되자.

9월 19일(일) / 미 1-4

▶ 내용요약 : 미가 1장에서 유다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미가에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고발하셨다. 한편 미가는 그 죄악이 유다와 예루살렘까지 번졌음으로 인해 슬퍼하며 애통했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정치, 경제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그들은 약자를 짓밟고

9월 14일(화) / 욕 1-3

▶ 내용요약 : 요엘 1장에서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요엘은 메뚜기와 가뭄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향하여 그 모든 징조들을 주목하여 보고, 탄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백성들은 여호와와 날이 가까이 옴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2장에서 요엘은 매우 생생하게 재앙의 모습을 묘사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장차 임하게 될 여호와와 심판에 대해 선언했다. 이 메시지의 목적은 분명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다. 마지막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때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2장)
“그 후에 내가 내 ()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 생각하기 :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시대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이 있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그분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성서적 가치관을 기초로 한 시대정신을 가지고 시대를 진단하며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9월 17일(금) / 암 7-9

▶ 내용요약 : 아모스 7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여러 재난들에 대한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메뚜기의 재앙과 불의 재앙을 보여주셨다. 이에 아모스는 중보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림줄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시고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림줄로 점검하시고, 기울어진 담은 허물어버리실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름 과일(카이츠) 한 광주리를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의 끝(케츠)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셨다. 그럼에도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 또한 약속하셨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8장)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의 ()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점검하시면 그 누구도 반듯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다(롬 3:10,23). 그런 우리를 영원한 구원과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 3장에서 미가는 이스라엘 통치자들의 죄를 고발했다. 2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도자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고, 착취와 억압을 일삼았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었다. 소망의 날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룩하시고 포로 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4장에서 미가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현재의 환난을 이겨내도록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9월 15일(수) / 암 1-3

▶ 내용요약 : 아모스 1-2장에서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 드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에게 내리신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들에 대해 말씀하신 후 이스라엘 또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고, 음란을 행했으며, 신앙적으로도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이에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는 예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 질문 : 본문은 아모스의 직업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1장)
▶ 생각하기 :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변역을 누리고 있었다. 그들은 풍요로웠고, 안전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반대였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빈곤하고 위험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돌아보자.

9월 18일(토) / 욕1-욕4

▶ 내용요약 : 오바다는 에돔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돔의 죄를 심판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선포하셨다. 한편 요나는 니스웨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행 배를 탔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배에서 던져진 후 큰 물고기에게 삼켜지게 하셨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다시금 자신의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다.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니스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에 니스웨는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를 드림으로써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

▶ 질문 : 요나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는가? (3장)
▶ 생각하기 : 요나는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니스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니스웨를 용서하실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 그리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차별 없이 나눌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하자.

▶ 질문 :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3장)
“오직 나는 ()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 생각하기 : 미가는 여호와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진정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오직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한다.